

“1년 더 힘든 여정 이겨낸다” 광주·전남 선수들 새 각오

도쿄올림픽 1년 연기

유도 김성연 “체계적 준비…메달 딸 것”
근대5종 전용태 “힘든 여정 더 열심히”
복싱 임애지 “1년 더 준비할 기회로”

2020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광주·전남 국가대표 선수에게도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게 됐다.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IOC의 발표만을 기다리던 국가대표 선수들도 그동안의 계획을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도쿄올림픽 개막에 맞춰 4년 동안 컨디션을 조절해 온 선수, 올림픽 티켓을 확보한 채 출전만을 기다려 왔던 선수 모두 허탈함이 클 것으로 보인다.

한국 여자 유도 70㎏급 간판 김성연(29·광주도시철도공사)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다. 2021년 30세가 되는 김성연은 시간이 늦어질수록 상황이 어려워진다.

최원 광주도시철도공사 감독은 “은퇴를 앞둔 상태에서 다시 1년을 싸우고 버텨내야 하는 정신적 두려움과 불확실한 국내외 경기일정으로 훈련과 랭킹 포인트 유지·적립이 모두 힘든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4월 말까지 기초체력 강화에 힘쓰고 그 이후로 기술훈련, 전지훈련을 하는 등 체계적으로 준비해 선수생활을 올림픽 메달로 장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근대5종에서 사상 첫 올림픽 메달을 노리는 전용태(25·광주시청)도 “개인적으로는 올림픽이 취소만 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다”고 심경을 드러냈다.

2018년 국제근대5종연맹(UIPM) 연간 최우수선수상을 받는 등 실력으로 기대를 모았던 그는 지난해 세계선수권대회 개인전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한국 근대5종 선수 중 가장 먼저 도쿄행 티켓을 따놓은 상태였다. 전용태는 “그래도 자신 있다. 앞으로 1년이 힘든 여정이 되겠지만, 이렇게 된 만큼 다시 열심히 준비해보자는 각오”라고 말했다.

한편 1년의 기다림을 오히려 기회로 보는 이도 있다.

한국 최초로 여자 복싱 올림픽 무대에 오르는 임애지(21·한국체대)는 “허탈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1년 동안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임애지는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는 법과 링 위에서 안 좋은 습관을 고쳐나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1년동안 준비잘 해서 후회 없는 경기를 하고 싶다”고 각오를 밝혔다.

1년 연기 소식에도 묵묵히 제 길을 가겠다는 선수도 있다. 장대높이뛰기 진민섭(27·여수시청)은 “올림픽이 연기됐어도 마음에 큰 변화는 없다”며 평정심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태백 전국실업선수



복싱 임애지

권에서 개인 통산 7번째 한국신기록을 세우며 주목 받았다.

진민섭은 “1년 동안 연습할 시간을 벌었으니 내년에 올림픽 메달을 딸 수 있도록, 지금까지와 똑같은 마음가짐으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일까지 19개 종목 157명이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다. 도쿄올림픽에 1만1000명의 선수가 참가한다고 볼 때 57%가 출전권을 이미 따냈고, 43%가 티켓 경쟁을 벌이던 중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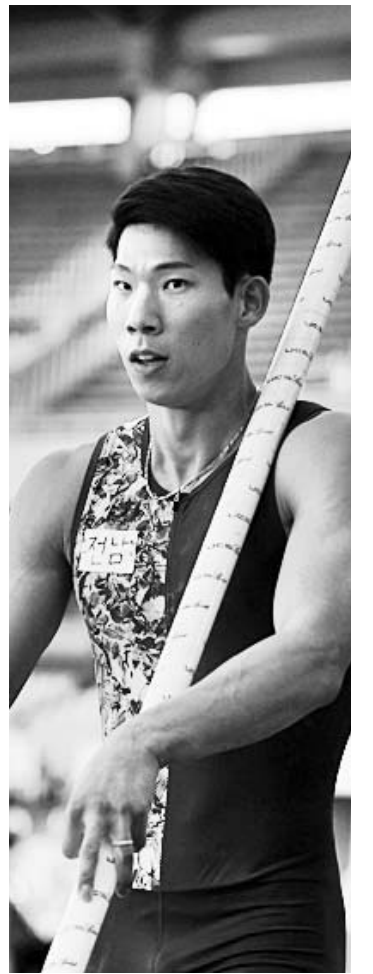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유도 김성연



근대5종 전용태



장대높이뛰기 진민섭

2021년 올림픽 일정 조정 어떻게…IOC 난제 수두룩

개막 시점 국제연맹들과 조율

바흐 위원장 IOC 조정위 역할 강조

사상 최초로 올림픽이 1년 연기되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난제에 직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IOC와 일본 정부는 2020 도쿄하계올림픽을 올해가 아닌 2021년에 열기로 24일 합의했다.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늦어도 2021년 여름까지 열기로 데드라인만 정했다.

처음으로 홀수 해에 열리는 지구촌 최대 스포츠 잔치는 이제 개막일을 새로 정해야 한다.

올림픽 연기 결정으로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와 같은 굵직한 스포츠 이벤트와 의 일정 조정은 불가피해졌다. 다른 종목별 국제연맹(IF)이 2021년 주최하는 세계선수권대회 스케줄도 공평하게 고려해야 한다.

수두룩한 난제를 앞두고 바흐 위원장은 24일 전 세계 뉴스통신사와의 화상회의에서 아베 총리와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앞으로 진행해야 할 일의 순서를 설명했다.

가장 시급한 사안은 올림픽을 언제 여느냐는 점이다.

바흐 위원장은 “아베 총리와 올림픽 개막 시점을 논의한 것”이라며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와 IOC 조정위원회에 달렸다”고 말했다.

IOC 조정위원회는 도쿄조직위의 올림픽 준비 과



‘도쿄 2021’이 새겨진 3D 올림픽 로고.

/연합뉴스

정을 점검하고 조언하며 냉철하게 비판하는 올림픽 핵심 기구로 IOC 관계자, IF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호주 출신 존 코츠 IOC 위원에 도쿄올림픽 조정위원회를 이끈다.

바흐 위원장은 개막 시점 결정 과정과 대회 일정 조율을 퍼즐 맞추기에 비유하고 “거대하고 어려운 퍼즐 맞추기에서 너무 많은 조각이 있다”며 “올림픽은 지상에서 가장 복잡한 이벤트로, 아베 총리와의 전화 통화만으로 모든 걸 하나로 모을 순 없다”고 평했다. 이어 “IOC 조정위원회와 IF의 협력에 특히 많이 의존한다”며 “매우 큰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IOC 조정위원회가 중심을 잡고 IF와의 일정 조정 논의를 거쳐 내년 올림픽 개막 시기의 윤곽을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선수라면 올림픽을 인생 최고의 무대로 치는 만큼 세계육상연맹과 세계수영연맹은 IOC 운신의 폭을 넓혀주고자 일정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육상연맹은 2021년 예정된 세계선수권대회를 2022년으로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세계수영연맹은 올림픽에 우선권을 주고, 개최 시점을 2021년 이내에 새로 정할 것으로 보인다.

바흐 위원장은 “23일 도쿄올림픽 연기 결정을 4주 안에 내리겠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일정 조정은 물론 수많은 올림픽 이해당사자들과 얽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며 “IOC 조정위원회가 이해관계자들과의 연기 관련 협상을 이미 시작했다”고 소개했다.

/연합뉴스

LG배 바둑 국내 선발전 다음달 13~28일로 연기

한국기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25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국내 선발전 일정을 연기했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기원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3월 22일~4월 6일)를 권고한 정부

지침에 따라 다음 달 1~13일 진행 예정이던 국내 선발전을 13~28일로 조정했다.

LG배는 매년 세계 각국에서 350여명이 참가하는 통합예선을 6~7일간 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통합예선을 국가별 선발전으로 대체하

고, 기간도 16일에 걸쳐 진행한다.

한국은 국내 선발전에서 7명에게 출전권을 제공한다.

지난 대회 우승자와 준우승자인 신진서 9단과 박정환 9단은 시드를 받아 본선에 직행한다.

신민준·변상일·이동훈·강동운·원성진·김지석 9단도 국가 시드를 받았다.

/연합뉴스

“이미 올림픽 출전권 획득한 선수들 불이익 없다”

대한체육회 “그대로 출전” 명쾌한 답 내놔

도쿄올림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1년 연기된 2021년에 열릴에 따라 올림픽 출전권 배분의 형평성 논란이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이를 두고 대한체육회가 25일 명확한 답을 내놔다. 체육회는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19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각 나라 국가올림픽위원회(NOC) 대표들과 화상회의를 할 때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획득한 57%의 선수들은 올림픽이 연기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출전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IOC는 도쿄올림픽 출전 선수를 약 1만1000명으로 추산하고 이 중 57%가 올림픽 티켓을 확보했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43%가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자격 예선 대회에서 출전권 획득에 도전하던 중 도쿄올림픽이 연기됐다.

체육회는 “43%에 해당하는 선수들은 기존 기록과 세계 랭킹에 따라 올림픽 출전권을 주는 종목에서 뛴다”며 “해당 종목이 올림픽 출전 기준 기록과 세계 랭킹을 어느 시점으로 새로 잡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종목으로는 유도, 레슬링, 펜싱, 배드민턴과 육상, 수영 등이 있다.

다시 말해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각 종목 올림픽 자격 예선과 랭킹 포인트가 걸린 종목별 국제대회가 무더기로 연기된 만큼 해당 종목 국제연맹(IF)이 언제 새 기준을 제시하느냐에 따라 티켓의 향방이 결정된다는 얘기다.

IOC는 IF와 4주 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달 10일 현재 올림픽 출전권 전체 157장을 확보했다. 기록·랭킹 종목에선 최대 60장의 추가 티켓을 기대한다.

/연합뉴스

광주시체육회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방안 마련

사무처 부서별 20% 재택근무

퇴근 후 곧바로 귀가 등 동참

‘사적 모임 금지, 퇴근 후 곧바로 귀가’
광주시체육회는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특별지침을 시행하기 위해 강도높은 실천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시체육회는 우선 사무처 부서별 20% 범위 내 재택근무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간은 학교 개학날에 맞춰 4월 5일까지이며 업무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시행한다.

세부 이행 지침으로 ▲점심시간 사차 운영, ▲대면회의 및 국내·외 출장 금지(부득이한 경우 외출장 최소화) ▲아프면 집에 있기, 아파하면 집에 보내기 실천 ▲회식 및 사적 모임을 지양하고 퇴근 후

바로 집에 가기 등 캠페인을 실천하기로 했다.

앞서 시체육회는 자체 관리 운영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물에 대해 휴관 조치를 내리고 시민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시체육회는 매년 추진해 오고 있는 생활체육 프로그램 사업을 비롯해 전국체전 예선대회 등 각종 대회 및 행사를 전면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지난 2월부터 평균 격일마다 광주시체육회관을 중심으로 다중 이용 체육시설물에 대해 방역 소독도 지속 실시하고 있다.

김창준 광주시체육회장은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체육회도 정부의 특별지침을 적극 따라 복무관리 대응에 나섰다”며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LOTTE CINEMA | 중앙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2관	인비저블맨,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짐승들
3관	월드 워 Z
4관	주디
5관	사랑하고 있습니까
9관	1917, 다크 워터스
7관 씨네커를	1917, 미드나잇 인 파리, 스타 이즈 본
8관 씨네커를	정직한 후보, 작은 아씨들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기획전시
강남구 <화양연화>
2020.4.10(금) ~ 5.10.(일)
광주문화예술회관 갤러리

기획공연 포커스
김영옥&이효주 듀오 콘서트
4.9(목) PM 7: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유영욱의 베토벤니즘
4.29(수) AM 11:00
광주문화예술회관 유튜브 생중계

즐거웁 문화산책

미드나잇 인 파리